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신문답**

혜암 스님(4)

영산, 어떤 것이 화두입니까

혜암, 봄날에 닭이 우느니라

영산, 어떤 것이 禪입니까

혜암, 신령스런 거북이가 날개를 펴느니라

영산(靈山) 스님이 하루는 수석사로 혜암(惠菴, 1886~1985) 조식스님을 찾아왔다.

-문:어떤 것이 화두입니까?

-답:봄날에 닭이 우느니라.

-문:어떤 것이 선(禪)입니까?

-답:신령스런 거북이가 날개를 펴느니라.

-문:어떤 것이 성인(聖人)의 말입니까?

-답:부처(古佛)가 지나간지 오래니라.

-문:어떤 것이 사구(死句)이며, 어떤 것이 활구(活句)입니까?

-답:벌써 죽었느니라.

영산 스님은 절하고 물러갔다.

<벽암록>에 '정풍은 땅을 두루 돈니 무슨 한계가 있으랴(靑風 匪 地 有 何 極)' 하는 구절이 있다. 정

씨는 '진공묘유(真空妙有)한 세계, 즉 진여실상의 세계는 언제 어디서나 천기(天機)를 누설하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면 이를 알 도리가 없다. 수행자가 위에서 '화두나 선(禪)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의 문을 여는 암호나 열쇠를 찾기 위한 교육지체(苦肉之策)인 셈이다.

장졸수재(張拙秀才) 선사는 "광명이 고요히 온 법계에 두루 비취, 성현과 범부중생이 한 집을 이루었네(光明 寂照遍河沙 凡聖含靈共一家)"라고 노래한 바 있다. 이 광명이나 정풍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고루 불어오고 비치고 있기에 성인이나 범부라는 차별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영

산 스님의 질

문처럼 굳이

'상인의 말'을

따로 찾는다던

이미 분별심에

떨어진 것이다. 사구와 활구 즉, 죽은

말과 깨달음의 말을 분별하는 질문

역시, 이미 중생심에 떨어진 죽은 말

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같이, 수행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상(相)에 걸림이 없어야 한다. <금강경>의 말씀처럼, '모든 상을 떠난 것을 이름 하여 부처라고 하기(離一切諸相 卽名諸佛)' 때문이다. 혜암 스님은 성인이나 범부나, 사구나 활구나 하는 상(相) 즉, 한 생각을 일으켰을 때 이미 십만 팔 천리나 어긋났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스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것을 알아내려는 성성(惺惺)히 깨어있는 의식으로 '들어쳐 보 면(德光返照)' 된다. 방범이라 하여 따로 찾게 되면 결국 분별심만 늘어나게 되지만 '다만 의심하는 곳'에서는 일체가 그대로 소멸되고 만다"고 당부하였던 것이다. 김성우 객원기자

진리는 '닭 우는 소리' 처럼 자명

我見 때문에 실상 바로보지 못해

이미 분별심에

떨어진 것이다. 사구와 활구 즉, 죽은

말과 깨달음의 말을 분별하는 질문

역시, 이미 중생심에 떨어진 죽은 말

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같이, 수행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상(相)에 걸림이 없어야 한다. <금강경>의 말씀처럼, '모든 상을 떠난 것을 이름 하여 부처라고 하기(離一切諸相 卽名諸佛)' 때문이다. 혜암 스님은 성인이나 범부나, 사구나 활구나 하는 상(相) 즉, 한 생각을 일으켰을 때 이미 십만 팔 천리나 어긋났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스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것을 알아내려는 성성(惺惺)히 깨어있는 의식으로 '들어쳐 보 면(德光返照)' 된다. 방범이라 하여 따로 찾게 되면 결국 분별심만 늘어나게 되지만 '다만 의심하는 곳'에서는 일체가 그대로 소멸되고 만다"고 당부하였던 것이다. 김성우 객원기자

번뇌·망상 비워내고 '無心の 경지'로...



혜곡스님 초청 간화선 수행법 담선법회 현장

원오극근(圓悟克勤) 선사(1063~1135)의 운상인(論上人)에게 주는 편지 글을 들어 법문을 시작하겠다.

"어느 것이라도 마음을 두기만 하면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가 생긴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후학을 살리는 말씀이다. 부처님이 꽃을 들어보이자 가섭이

관음대조사를 염화미소(拈華微笑) 이후, 조 사선이 전해져 온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느끼다. 부처님께서 우리가 당신과 똑

같은 부처임을 보여준 게 가장 큰 은혜인 것이다. 꽃 한 송이 든 것은 수미산이 좁쌀

속에 들어가는 도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리, 삶과 죽음이 틀어박힌 자리를 바

로 일러 준 것이다. 부처님께서 지주리는

별에 참선법을 남겨주신 것은 인간 최상의

복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일음일미와 분

별심을 내어 그 도리를 알려고 하면 하늘

과 땅처럼 떨어질 뿐이다.

가섭과 같은 조사스님들은 말 한 마디에

곧바로 깨달았지만 지금 수행자들은 법문

을 듣고도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

"지금 관문을 뚫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

보다 마음에 집착이 많기 때문이다. 만약

벗어나서 무심한 경지에 이르거든 하면

모든 망령된 생각과 더러운 습기가 다 없

어지고 지견과 일음일미의 장애가 모두 사

라질 것인데, 다시 무슨 일이 있겠는가. 그

리므로 남전(南泉) 스님은 '평상시의 마음

이 도(平常心是道)'라고 하셨다. 그러나 생

각을 일으켜 평상(平常)하기를 기다린다면

벌써 어긋나버린다."

요즘 사람들은 수미산이 좁쌀 속에 들어

가는 도리를 말하면 이해가 안 간다며, 구

름 잡는 소리라고만 한다. 그러나 조사스

님들이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밝혀

온 것은 크나 큰 복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가 지금 바로 허공성을 체득하지 못하는

건 마음과 육신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

기 때문이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

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말했다. 참

선에서는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다. 저 허

공성을 제대로 못 보면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세상 만물을

먹어 살리는 이치를 보지 못한다.

사람들은 생각이 움직인 것을 마음이라

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착각처럼

비워진 무심이 본래 마음이다. 빈 그릇,

허공성은 뭐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다. 번

뇌·망상을 비워버리면 텅빈 그릇, 무심경

계가 된다. 무심경지에 이르러면 망념과 습

기가 없어진다. 다른 종교는 아담과 이브가

파먹은 과일로 인해 인류에게는 원죄(原罪)

가 있다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무심경지에

이르면 백전만역 겁탈(劫)에 지은 업이 한 순

간에 사라진다고 본다. 지옥도, 극락도, 인

간계상도 내가 만든다. 내가 지은 업에 책

임을 지기 위해서도 화두참선을 해야 한다.

내가 태백산 도솔암에서 2년7개월 동안

장좌불야를 했다고 소문이 났지만, 정작

제대로 공부 맛을 본 것은 2개월 남짓이었

다. 나머지 기간은 실제 없는 번뇌·망상

과 처절한 싸움을 했다. 번뇌·망상이 밖

에서 온 것이 아니라, 무수한 과거생 동안

지은 허깨비 같은 업의 소산임을 알고는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 어떻게 참다운 무심에 들 것인가.

한 방울 물이 바다에 떨어지면 영원히 마

르지 않는다. 낙동강, 섬진강, 백마강이 바

다로 들어가면 이름조차 없어진다. 허공에

서는 모든 게 하나이다. 진실하지 못하고

하심하지 못하는 아상(我相)을 가진 내가

참나로 돌아갈 때가 화두 드는 순간이다.

번뇌·망상은 내가 끌어안고 있어도, 너다

나다,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예쁘다 미

하는 관념으로 지은 것이 번뇌·망상이다.

평상심이란 깨달음이다. 그 무엇이든 생

각을 일으켜 구하거나 바려낸 어긋나고 만

다. 한 생각 일으킨 망상을 지우려면 모르

는 곳,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

까?" 하고 물었을 때, "뜰 앞의 잣나무니

라" 한 것이 무심에서 나온, 실상을 곧바로

일러준 말이다. 이것을 못 알아먹으니까

"왜, 뜰 앞의 잣나무라 했을까?" 하고 화두

를 들게 되는 것이다. 이 몸뚱이 끌고 다니

는 것이 무엇인가를 몰라서 "이것이 무엇

인가?"하고 화두를 드는 것이다.



조계종 포교원 주최 '간화선 수행법에 따른 담선법회'가 열린 적지사 만덕전은 선수행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열기로 가득했다.

문답

문:근기와 수준에 따라 좋고 나쁜 화두가 있습니까?

-좋고 나쁜 화두란 따로 없다. 각자의 성질과 업에 따라 적합한 화두가 있을 뿐이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무자(無字) 화두를, 따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歸何處)' 화두를 들 것이다. 이 몸뚱이가 참나

가 아님을 알고 참나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발심이 될 때 선지식을 찾아가면, 근기와 인

연에 맞는 화두를 간택 받을 것이다.

문:1년 전부터 '만법귀일 일귀하처' 화두를 들었는데, 잘 안됩니다. 어떻게 화두를 챙겨야 할까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의문이 깊어져 잘 안 되는 수가 있다. 만공 스님은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가 무엇인가?' 이렇게 화두를 들고 한 적이 있다.

문:바람이 잠잠해지면 파도가 쉬게 된다 하였는데, 어떻게 바람을 잠잠하게 합니까?

-바람은 육망이자 아니다. 내 몸속에서 바

람을 화두로 바꿔야 한다. 파도는 망

상의 세계요, 바다는 참 마음의 세계다. 육

망이 멎어야 파도가 쉬게 된다. 그러나 망

상인 파도가 그대로 바다이자 보리이다. 그

놈이 바로 부처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문:모든 화두의 목표는 같은가요?

-1700공안은 같다 다르다. 옳다 그르다를

넘어서 직접 깨달아서 맛을 봐야 한다. 화

두의 본래 장치는 마참가지이지만, 갈다

다르다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김성우 객원기자

RYN Walking Shoes advertisement featuring a man in a red shirt and various shoe models.

RYN Walking shoes advertisement with detailed descriptions of features like shock absorption and arch support.

Advertisement for a Buddhist art exhibition titled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Participating in the Dharma with the Heart of a Thousand Years Ago).